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25년 1차 합격생 12기 윤○○입니다.
저는 인강으로 자율적인 공부보다는 강제성을 두고자 노량진에서 실강을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학원은 미래인재 경찰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로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헌법

기본 강의와 기본서를 1회독 하셨으면 기출을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헌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기출**을 익히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스킬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순경 기출뿐만 아니라 변시, 행시, 국회, 간부 등등 순경 범위에 맞게 기출을 뽑아서 모두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출 풀이를 통해 문제 감각을 익혀서 시험에서도 어려움 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기출을 다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로 다시 가서 읽어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과목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시험 한 달 전쯤 최신판례 특강을 하는데 꼭 들으시고 반복해서 본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저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이미 기본을 다졌기 때문에 심화 이론부터 들었습니다. 심화여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르쳐주셔서 바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심화이론, 기출, 파이널 1·2·3단계, 최신판례'를 열심히 듣는다면 90점 이상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계단형으로 오릅니다.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특히 2단계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이때 틀린 부분들은 오려서 오답 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최신판례 반복해서 보기.

☑**경찰학**

저는 이총기 책을 다회독 하면서 기출을 병행하였습니다. 경찰학은 헌법과는 다르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요즘 시험패턴은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내기 때문에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85점 이상 고득점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서8, 기출2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기출을 다회독 하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5회독 이상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저는 학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미래인재뿐만 아니라 윌비스, 해커스, 경폴카 등등 5천 원씩 내고 응시하여 실제 시험장처럼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가위로 오려서 공책에 붙여서 다시 안 틀리게끔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와 최신판례만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체력**

필기시험 3달 전부터는 체력학원을 다니면서 센서를 익히고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본인의 의지가 강하지 않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력학원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체력 시험에서 떨어져서 집에 가는 학생들, 배수가 확 떨어지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 공부 시간이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보는 주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경찰을 선택한 이상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체력에서 48점을 맞아서 1배수에서 0.1배수로 진입하였습니다. (정말 쉽게 뒤집힙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단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단 이상을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경과 같은 경우는 단증으로 환산 점수가 갈립니다.

☑면접

면접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학원을 비추천합니다. 면접은 주관적인 거라 학원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받은 질문 모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경험들을 정리해 보고 말을 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뢰감이 들게 됩니다.
발표면접+개별면접으로 바뀐 만큼 면접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20%에서 25%의 비율로 늘었고 혼자서 25분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남청 환산 -4까지 붙은 분이 계십니다. 면접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말을 할때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태도가 좋은지를 봅니다. 우리 학과에서도 매년 필합자가 나오니 선후배들끼리 면접스터디를 만들어서 서로 면접을 봐주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면접에서는 최근 시사가 주제로 나옵니다. 카카오톡에 뉴스봇-경찰을 구독해서 보거나, 씨티탐정 블로그 등에서 발표 면접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개별면접과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경험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 책임감을 다한 경험, 봉사했던 경험 등등 자신만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경찰 시험은 포기만 안 한다면 누구나 붙는 시험입니다. 저 역시 "나는 반드시 경찰이 된다"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안될 때는 밖에 나가서 땀이 날 때까지 달리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울면서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또한 중요한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 한 달 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으며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마지막을 불태운다면 합격합니다.

☑**수험기간 루틴**

저는 시험시간인 오전 10시~11시 40분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시험 끝난 시간인 12시 이후)으로 정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약 6개월 간의 긴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화된다면 시험 날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공부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하루에 8~10시간 이상은 공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날 공부한 것은 바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점수는 분명히 오릅니다.

이 글을 보는 후배님들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